

요즘 청소년 네티즌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신조어 가운데 '짱'과 '짜퉁'이라는 말이 있다. '짱'이란 얼(얼굴),공부짱,쌈(싸움)짱같이 한 분야에서 남다른게 뛰어나거나 최고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일컫을 때 쓰이는 모양이다.

'짜퉁'은 명품을 흉내 낸 가짜상품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근에는 중국이 종주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짜퉁'이 불티나게 팔려나간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짜퉁'의 범주를 넘나드는 양심이나 우정, 애정도 적지 않다는 불변 소리도 들린다.

아무튼 참 우스우면서도 신동한 것은 이 '짱'이나 '짜퉁'은 어디에도 불이든 제 역할을 보란 듯이 척척 잘도 해낸다는 점이다.

이제 두 낱말은 이미 청소년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들 못지않게 최고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흉내내려는 '짱'과 '짜퉁'의식은 처음엔 낱말을 트집 잡던 어른 사이에서도 이미 만연되어 있는 이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거개의 사람들은 일년을 하루같이 '돈짱', '권력짱', '몸짱', '재주짱' 등을 휘둘러며 끌어안고 산다. 그러다보니 '짱'이 되면 어깨에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짱'이 못된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기 일쑤다.



불자 세상보기

은 산 부산 금선사 주지

'짱'을 꿈꾸는 '짜퉁' 시대

물론 '짱'을 꿈꾼다고 해서 비난 받을 일은 아니다. 또 '짱'이 되었다는 이유로 눈총을 받을 일도 결코 아니다. 하지만 설령 '짱'이 못되었다고 해서 모두 '짱'의 반대인 이른바 '퐁'은 아니다. 여기서 '짱'은 못되면서 '퐁'은 면하려는 몸부림의 틈새를 노리고 등장한 것이 바로 '짜퉁'이 아닌가 한다. '짜퉁'은 겉치장과 모방심리가 빚어낸 합작품이랄 수 있겠으나 그 이면에는 '퐁'을 모면하려는 심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왠지 '퐁'이 필지언정 '짜퉁'은 되지 않았으면 싶다.

'퐁'은 왠지 '짱'과 '짜퉁'을 뛰어넘을 소지가 있어 보이나 '짜퉁'은 그 가능성이 오히려 아주 희박할 것 같은 기우에 젖어둘게 되어사다.

또한 '짱'을 꿈꾸며 '퐁'이 못되었다고 해서 결코 실망할 필요도 없다.

본질적 측면에서 보면 '짱'이나 '퐁'이나 그 틈새의 '짜퉁'이나 모두 환상, 거품, 그림자처럼 허무한 것일 수도 있다. 아니 허무한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짱'이나 '퐁'은 없으며 '짱'이 아니어도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은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을 사람들은 '맘짱'이라 부른다.

'맘짱'! 그렇다! 정작 그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마음이라고 우리는 곧잘 떠벌러대지만 또 얼마나 쉽게 망각해오곤 했단가? 중요한 것은 '짱'이 아니라 '짱'이 되는 과정과 그 이후이다.

세상엔 진품과 똑같은 가짜가 있는가 하면, 가짜만도 못한 진짜들도 판을 치며 살고 있다.

'짜퉁'보다 함량이 미달인 '짱'도 얼마든지 많다는 이야기다.

한 지식인은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시대는 이미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사라져 가고 있으며 '짜퉁' 시대는 인간의 양심과 숨결을 점점 느끼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바 있다.

'짜퉁'이 사라지고 '짱'들과 '퐁'을 꿈꾸는 사람 가운데 '맘짱'들이 늘어나길 바라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은 멀종되어 가는 착한 동식물들처럼 우리 내면에 얼마 안남은 '맘짱'의 분자마저 나날이 멀종되어가고 있는 듯해 앞으로 세상살이가 더 팍팍해지지 않을까 적어 염려스럽다.

불자의 눈

억류된 동포들에게 생명의 빛 내리소서

제불 보살이시여!

올 여름 한국은 뜨겁습니다. 23명의 동포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세력의 인질이 된 순간부터 이 여름의 뜨거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납치 14일이 지난 이 시점, 납자 2명이 살해되어 시신으로 돌아왔고 나머지 21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사람의 기지나 동굴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협상은 무기력하기만 하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주변 이슬람 국가 그리고 미국과 일본 등 우방들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억류된 동포들의 생명이 태풍 앞의 촛불입니다. 협상 시한이나 조건 등 모든 상황이 테러집단에 의해 주도되고 있어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고 보면, 우리 국민과 자유를 숭상하는 인류의 안타까움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입니다.

제불 보살이시여!

은 국민이 그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고 더 이상 인명이 '협상'의 도구가 되지 않길 열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원과 열원이 있을 뿐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종교계는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갖던 그들의 귀환을 촉구하는 목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속된 교회나 개신교는 '지나친 선교활동'에 대한 자성의 분위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교가 가톨릭 원불교 등 이웃 종교들까지 침묵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대규모 집회는 아니더라도 각 종교의 입장은 명확히 밝히고 각 종교의 방법대로 억류된 동포들을 위한 종교적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종단들이 동포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거나 기원법회를 열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자대비의 동사정 정신을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또 다른 자기모순이고 종교간의 화합을 촉구해 온 선언들이 '구두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불 보살이시여!

지금 인류는 참담한 자화상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족과 지역 이기주의, 세계를 뒤엎는 물질만능주의, 인성과 생명의 귀중함을 외면한 온 업보를 스스로의 살점을 물어 뜯으며 감내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테러도 그 근본은 모두가 욕망입니다. 자기를 위해 누군가를 살상하고 짓밟는 집단이 있는 한 사바세계는 활활 타오르는 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법계를 불태워 극락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이 악연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힘과 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지옥을 극락으로 변화시키려는 범인류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불 보살이시여!

불자 개인은 물론 온 인류가 욕망에 휘둘러 살고 있는 이 참상을 참회하옵시다. 타인의 역사와 문화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 무례함도 참회하옵시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치 아니한 오만함도 참회하옵시다. 저희들의 이 진참회가 이역만리에서 공포의 나날을 보내는 동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춰지길 지극한 마음으로 원하옵나니, 제불 보살의 가피 충만 하소서.

▶▶ 현대불교신문은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된 동포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희생된 분들의 넋과 가족 친지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종교자유' 칼럼

23. 서울이 하나님께 봉헌되다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공인들 '政敎분리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그동안 본 칼럼이 독자들의 성원과 격려 속에 종교의 사회성을 공론화하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고 있다.

공적 영역 중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강제적인 예배와 종교교육, 특정종교인 선별제출 등 위헌의 소지가 큰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드러내 보였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라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종교현상은 상당히 왜곡되어 있고,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데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화두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병은 알아차린 순간 이미 반은 고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골칫거리인 '종교병'도 국민적 관심 속에 말끔히 나아 건강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을 희망한다.

이번 회부터 다루고자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공적 영역의 문제들, 즉 공인(公人)의 종교·사회적 행위로서 주로 '정교분리'의 원칙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사건적으로 공인은 '공직에 있는 사람' 또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관청이나 공공단체, 즉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적인 일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 예산 또는 공공시설을 특권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대중들에게 늘 노출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예컨대 정치인, 언론

방송인, 연예인, 국가대표, 교육자, 종교지도자 등-을 통칭하여 '공인'이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민주화 과정을 거쳐 국민의 권리 의식이 성숙해지면서 자유권과 평등권 등 시민권에 대한 자각이 크게 일어나 예전에 그냥 지나쳤을지언정 것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게 되었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종교와 관련된 시민권도 자연스럽게 사회 이슈화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 강익석 군의 '예배강요 거부' 사건과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시 봉헌' 사건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두 사건 모두 같은 해에 발생한 것은 어쩌면 우연이 아닐 지도 모른다. 정치사회적으로 큰 벽이 무너진 시점에서 종교계가 마지막 남은 영역이자 개혁대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 아닐까.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이명박 장로의 그 유명한 '서울시 봉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04년 5월 30일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장중체육관에서 'Again 1907 in Seoul-서울에서 예루살렘까지'라는 주제로 개신교 전파(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백주년을 기리기 위한 예배 축제 성격의 행사가 열렸다.

서울지역 대형교회와 청년선교단체 등에 소속된 1만여 명의 개신교 청년들이 참석한 '청년·학생연합기도회'라는 종교집회였다. 5월 31일 새벽 이 행사에 초청받은 당시 이명



이명박 전 서울시장

박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도시이며, 서울의 시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서울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수도 서울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임을 선포하며, 서울의 회복과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서울 기독교 청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라고 밝힌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사'를 직접 낭독했다.

이 사실이 1개월이 지난 7월 1일 인터넷 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에 보도되어 물의를 빚었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 시장의 경솔하고 부적절한 처신에 우려와 함께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 종교 활동에 한 나라의 수도

를 종교적으로 바친다는 게 어처구니없다.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 개인 것이냐'던 한 시민의 인터넷가 문제의 핵심을 말하고 있다. 불교시민단체로 구성된 종교평화위원회도 성명서를 내어 "서울 시민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어느 불자는 "기독교인 아니면 서울서 나가란 얘기로 들린다"며 불쾌감을 표시했고, 정치인들도 "그나저나 서울은 이제 하나님 것이 됐으니 수도를 옮기길 옮겨야겠어요"(유인태 의원), "사람 땅으로 옮겨야지요"(임재정 의원) 등 수도권 이전 문제와 연결시켜 가지 돌린 농을 주고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당시 이 시장의 목영만 비서실장은 "개인적으로 근무와 시간에 참석한 건데 문제될 게 없나.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종교적 행위 자체를 비종교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이상하다"며 오히려 반문하고 있다. 국민적 정서와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당일 이 시장이 읽은 봉헌사에는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장로'라고 되어 있어 불명히 직함을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봉헌사 표지에도 '서울시 공시 휘장'까지 세겨져 있어 '개인적으로 참석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주회측은 17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올해 2007년에는 아예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전국적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선포하였다고 하니, 개신교 청년들의 종교적 순수성도 의심스럽거니와 대권에 눈이 멀어 종교를 이용하겠다는 이명박 장로를 보면 측은지심까지 생긴다.

많은 세상, 화평한 사회를 위해 정치와 종교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전강좌 학인 모집

과 목	강 의 시 간	강의일자 변경
금 강 경	1교시 : 2시 - 3시 10분 (매주 월요일 오후)	법회일인 경우 화요일
대승기신론	2교시 : 3시 30분 - 4시 40분	

◆모집대상 : 스님, 일반인 ◆통신생 : E-mail 통신 가능
◆모집인원 : 약간명 ◆학 기 : 2학기
◆개강일시 : 2007년 9월 6일 오후 2시
◆장 소 : 서울 중랑구 망우3동 120-7(면목역, 상봉역)
◆전 화 : 02)496-3952~3

<무료 명상치료를 안내>
중풍을 제외한 모든질병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불교전문강원 임제선학원

봉축
묵언마을 부처님 점안식

■ 행 사 : '묵언마을' 부처님 점안식
■ 일 시 : 불기 2551년(2007년) 8월 12일 오전 10시(일요일, 음력 6월 30일)
■ 장 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 403-2번지 '묵언마을'
☎ 0502-114-오! 천사, 031)672-9114, 011-8282-112, 011-8282-113
■ 오시는 길
자가용 : 중부고속도로-일죽, 음성나들목-묵언마을
대중교통 : 서울(30분마다)-남부터미널-동서울터미널-죽산하차

'묵언마을' 부처님 점안식에 초대합니다.

'묵언마을'은 시인 김수필가인 승려 지계야가 부처님의 도음으로 洞天 칠현산에서 홀로 5년간 창건한 사찰입니다.

부처님 가피로 점안식을 봉행합니다. 동참하시어 부처님 가피를 가득 받아 가시기를 간곡히 서원합니다.